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5호 【루계 제2713호】

주체111 (2022)년 8월 27일 토요일 음력 8월 1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에 비낀 절세위인의 숭고한 세계

환희와 격정의 세찬 설레임, 사변적인 일이나 경사를 놓고 마냥 가슴부풀며 터치는 격동된 심정의 분출이 바로 만세이다.

인류력사의 페지들을 펼쳐보면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기원하여 사람들이 웨친 만세도 있었고 전투와 전쟁에서 이긴 환희를 안고 인민과 군대가 부른 만세도 있었다. 또한 위인을 우러러 사람들이 터친 만세도 있었고 경축의 날을 맞아 울려퍼진 만세도 있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 력사의 갈피에도 령도자가 인민을 찬양하여 인민만세를 부른 례는 기록되여있지 않다. 지난 10일,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공화국의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로 뜻깊은 연설을 끝마치시였다.

총포성없는 전쟁이라고 칭하던 방역전쟁, 그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을 우러러 인민이 터쳐야 할 만세이건만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만세를 소리높이 부르신것이다.

그 힘찬 음성을 들으며 인민은 오열을 터뜨렸다.

《총비서동지께서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로 뜻깊은 연설을 마치실 때 저의 마음속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만세, 만만세의 우렁찬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이께서 최대비상방역전에서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뜻깊은 회의에서 승리만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민 만세를 부르시여 그 위대한 성과를 우리 인민모두에게 고스란히 안겨주시였습니다.》

공화국인민들이 터치는 이 심장의 목소리들에는 자기들이 모시고 따르는 령도자가 어떤분이신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된 격정과 긍지, 행복감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웨치신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

이 아홉 글자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 꽉 차있는 인민사랑의 크나큰 무게가 실리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계적인 대류행병의 발생초기부터 초특급의 비상방역장벽을 구축하고 완강히 견지하면서 2년나마 평온을 유지해오던 우리 나라에 악성비루스가 류입되였다는 현실앞에 솔직히 심정은 착잡하였다고, 그것은 나에게는 목숨을 내걸고라도 무조건 지켜야 할 인민이 있었기때문이라고 자신의 마음속진정을 인민앞에 터놓으시였다.

목숨을 내걸고라도 무조건 지켜야 할 인민!

인민들은 끓어오르는 격정속에 이 뜻깊은 말씀을 받아안으며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91일간의 잊을수 없는 날들을 되새겨보았다.

이 기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생명을 지켜주시려 련일 중요당회의들을 소집하시고 하나에서부터 열, 백, 천, 만가지에 이르는 대책들과 방도들을 직접 내놓으시였으며 명철한 방략들도 가르쳐주시였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 간고했던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방역사업을 지도하시며 보아주신 문건만해도 무려 1 772건에 2만 2 956페지나 된다는 이 사실을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해볼수 있으며 알수가 있겠는가. 깊은 밤 평양시내의 약국들에도 몸소 나가시여 의약품공급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가정에서 마련하신 의약품들을 전염병으로 앓고있는 황해남도안의 인민들에게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하신 친어버이사랑을 인민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잊을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헌신, 숭고한 인민사랑에 의해 간고했던 방역전쟁은 종식되고 마침내 승리를 선포하게 되였다.

불과 석달전 공화국경내에 악성비루스가 류입전파되였다는 사실이 공표되였을 때 승리의 날이 이토록 빨리 오게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진할줄 모르는 헌신과 사랑이 이러한 기적을 창출했건만 그이께서는 이 모든 승리의 성과를 고스란히 인민에게 안겨주시고 다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시였던것이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인 주체104(2015)년 10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경축하는 뜻깊은 연단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를 높이 부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이번 당창건 일흔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연설하면서 마지막에 조선로동당 만세를 부른것이 아니라 조선인민 만세를 불렀다고 하시며 내가 왜 그렇게 하였는가 하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일군들은 당의 인민사랑의 뜻과 정을 심장에 가득 채우고 인민앞에 무한히 겸손하여야 하며 생눈길, 진창길을 앞장에서 헤치면서 인민이 바라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여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르신 인민만세에는 바로 이렇듯 고결한 멸사복무의 숭고한 뜻이 세차게 맥동치고있다.

인민을 위해서는 한몸이 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여 길우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모진 시련의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만이 꽉 차있다.

하기에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들으며 각국의 출판, 통신, 방송들은 이구동성으로 격찬의 목소리들을 높이였다.

《**김정은**령도자의 연설은 인민으로 시작하여 인민으로 끝난 인민을 위한 연설이였다. 》

이 행성의 정치가들치고 인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허나 그들중 어느 누가 이렇듯 인민에게 진하디 진한 사랑과 정을 쏟아부은적 있었던가.

불보다 더 뜨거운 자애로운 어버이의 그 사랑의 세계는 이 땅을 그처럼 짧은 기간에 비루스청결지역으로 만들었다.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정은 모든 승리와 기적의 원천이다.

승리한 오늘에 더 위대할 래일의 승리를 위해 우리는 승리라는 이 말을 아껴야 하며 보다는 각성과 실천에 힘써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서 인민은 오늘의 승리를 더 큰 승리에로 이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은인이시다.

하기에 천만인민은 경애하는 그이만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목청껏 웨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만세, 만만세!!!》

함성식

사랑의 특별명령을 받들어 91일

지난 8월 18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최대비상방역전에 참전하여 혁혁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을 만나시고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신데 이어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소식은 지금도 공화국인민들의 가슴가슴을 크나큰 격정으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90여일간 악성비루스를 박멸하기 위한 치렬한 전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된 군의부문 전투원들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고 축하해주신 격동적인 화폭은 원수님의 령도를 받는 인민군대가 어떤 군대인가를 만천하에 과시한 력사적인 계기였다.

공화국에서 군대는 언제나 인민의 끝없는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한것은 공화국군대가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참다운 인민의 군대이기때문이다.

지구상에 나라마다 군대가 있고 군대마다 국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공화국의 군대처럼 조국수호, 인민사수의 방탄벽,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존엄과 영예를 떨치는 군대는 없다.

공화국의 군대는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피와 땀,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면서도 인민들에게 사소한 불편이라도 줄세라 인민의 소박한 성의마저 사양하는 고상한 풍모를 발휘하여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고있다.

이번 90여일간 수도의 방역위기를 평정하기 위하여 용감히 싸운 군의부문 전투원들도 전투 첫날부터 떠나는 날까지 인민의 군대로서의 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악성비루스를 박멸하기 위한 방역전쟁의 전기간 군인들은 단 한순간도 흐려진적 없는 눈빛으로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었다. 소뿔도 구부러든다는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24시간 단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고열로 신음하는 마지막 한사람의 주민까지 찾아간 군인들, 그렇게 하루하루 긴장한 결사전을 벌려 방역전에서의 승리를 안아왔건만 떠날때에는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줄세라 주민들이 잠든 이른새벽에 조용히 거리를 떠나갔다. 그래서 인민들은 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의 소행에 누구나 감동의 눈물을 금치 못한것이다.

진정한 인민의 군대인 조선인민군의 고상한 정신도덕적기강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항일무장투쟁을 령도하시던 나날에 창조되고 오늘까지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인민을 위한 일에 언제나 앞장서도록 간곡히 가르치시고 이끌어주고계신다. 군인들이 웨치는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 인민이라는 단어를 더 새겨넣도록 하시여 인민군군인들이 항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간직하도록 하시였고 군인들이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는 보고를 받으실 때마다 제일 기뻐하시며 높이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번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랑의 특별명령을 내리시여 군의부문 전투원들을 영광의 좌석에 불러주시고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였다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우리 군대의 견인불발의 정신과 백전백승의 전투력, 당군의 고귀한 풍모와 아름다운 절개를 과시한 전투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주시였다.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 인민의 아들, 친형제, 이것이 91일간의 성스러운 전투행정에 평양시민들의 뇌리에 찍혀진 군의부문 전투원들의 참모습이였다고 값높은 평가를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들으며 불사신의 용사들은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키워주고 이끌어주고계시는 인민군대.

위대한 령장을 높이 모시여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인민의 군대가 있고 군민대단결의 아름다운 화폭이 온 나라에 끊임없이 펼쳐지고있으며 공화국은 그 어떤 도전과 시련에도 끄떡없이 휘황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특고 화선군의들은 떠나지 않았다

속담에 가까이 있어야 정이 두터워진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있으면 그만큼 정도 멀어진다는 말이 생겨난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에 대한 이 속담이나 격언을 무색케 하는 화폭을 나는 동대원구역 동신동의 약국앞에서 눈물겹게 목격하였다.

지난 14일 아침 약국앞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른새벽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귀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갑자기 떠났다는것이 너무도 믿어지지 않아 달려온 사람들이였다.

《어쩌면 그리도 무정하게 떠날수 있는가. …》

《군인동무들이 정말 떠나긴 떠났는가요?》

《그들을 이제 어디로 가면 만날수 있을가요?》

수십여명이 동시에 물음을 쏟아내였으나 대답을 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예상치 않은 사람사태에 《졸경》을 치르느라 진땀을 빼던 약국의 의사선생이 한참만에야 울먹이면서 말하는것이였다.

《여러분, 군인동지들은 비록 떠나갔지만 그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나요. 그들은 우리의 곁을 떠난게 아니랍니다.》

의사선생의 그 말이 나의 가슴을 쿵— 쳤다.

군인들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다.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거수경례로 언제나 반겨 맞아주며 서있던 약국의 자리는 비록 비였지만 어이 그들이 인민의 곁을 떠났다고 할수 있으랴.

한 녀인은 약이 떨어져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그날 문득 집을 찾아와 구해온 약을 내놓던 땀범벅이 된 군인동무들의 모습이 정말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어떤 로인은 이젠 나이도 많아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며칠밤을 새워 온갖 지성으로 돌보아준 군인들이 있어 끝내 살아났다고 말끝을 흐리며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어이 그 녀인과 로인뿐이였으랴.

저저마다 터치는 군인들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를 듣노라니 마치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곁에 있는듯이 화선군의들의 모습이 어려왔다.

진정 당중앙이 안겨준 붉은 파견장을 심장에 품어안고 인민의 생명을 지켜 달려온 첫날부터 화선군의들은 악성비루스와의 전쟁이 벌어진 90여일 한시도 인민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

인민의 숨결을 지켜선 초병이 되여 그들은 순간도 약국초소를 비운적 없었고 군화가 닳도록 집집을 찾아 한밤에도 새벽에도 온 거리를 누비였다.

정이란 사랑하거나 친근하게 여기는 마음이라 하였는데 군의부문 전투원들의 인민에 대한 정은 단순히 마음뿐이 아니였다. 그것은 헌신과 희생이였다.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순간 서슴없이 팔을 걷어올려 자기 피를 수혈해준 애젊은 전투원도 있었고 의식없는 환자의 입에 기꺼이 자기 입을 대고 숨길을 열어준 군의도 있었으며 신병으로 당하는 고통을 애써 숨기고 인민을 찾아가던 길에서 순직한 그런 지휘관과 대원들도 있었다.

피를 나눈 정, 숨결과도 같은 정, 자기 희생으로 꽃피운 정만큼 가장 진실하고 열렬하며 아름다운 정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으며 혈육보다 더 가까운 이런 정보다 극진한 정을 또 어디서 찾을수 있단 말인가.

정녕 90여일 그 어느 집이나 군복입은 《아들》, 《손자》들이 찾아와 뜨거운 정을 나누었고 또 화선군의들에게는 그 집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이 사는 《나의 집》이였다.

외지에 나간 자식을 잊지 못하는 부모들처럼 인민들은 한집안식구보다 더 다심하고 정성스럽게 걱정해주고 진심을 다해 보살펴주며 자신을 깡그리 바친 《아들》, 《손자》들을 잊지 않고있다.

불편한 다리를 고쳐 대지를 활보할수 있게 해준 군인들을 잊을수 없어 한 소년이 그린 한폭의 그림속에 우리 군대가 함께 있고 룡흥약국에서 생명의 고고성을 터친 장룡흥이의 그 뜻깊은 이름속에 우리 군대의 이름이 울리고있다.

가까이 있어도 우리 군대이고 멀리 갔어도 멀어질수 없는 우리 군대이다.

나는 생각했다.

혹심한 자연의 광란으로 인민들이 보금자리를 잃었을 때에도 제일먼저, 제일 가까이 나서서 인민들을 수호한 우리 인민군대야말로 불비쏟아지는 전화의 날에는 인민을 지켜 피와 목숨도 아낌없이 바칠 운명의 수호자들인것이다.

이런 군대와 어찌 한순간인들 떨어질수 있으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다 해도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과 군대가 함께 있다.

하기에 인민들은 오늘도 방역전쟁의 90여일간 군의부문 전투원들의 용감성과 희생성, 아름다운 미풍과 헌신을 잊지 못해 추억하고있으며 그 추억속에 우리 군대는 인민과 함께 있다.

나는 약국앞을 오래도록 떠날수 없었다.

비록 군의부문 전투원들은 없어도 그들의 모습이 너무도 뜨겁게 어려오는 약국앞을 사람들도 오래도록 뜰념을 하지 않았다.

멀리로 떠나갔어도 언제나 인민의 마음속 제일 첫자리에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작별이란 있을수 없다.

그 어디 있어도 인민사수, 인민보위의 참호를 떠나지 않는 우리 군대는 언제나 인민의 곁에 있다.

김태룡

숭고한 맹세와 더불어 빛나는 거룩한 한생

위인의 맹세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 력사적의의와 무게가 부각되는 법이다.

오늘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주체의 한길, 사회주의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의 빛나는 현실은 그에 대해 더욱 깊이 절감하게 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오는 9월 1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룡남산마루에서 조선을 빛내리라는 굳은 맹세를 다지신 때로부터 62돐이 되는 날이다.

해솟는 룡남산마루에 서니
삼천리강산이 가슴에 안겨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리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아 조선아 너를 떨치리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
대를 이어 해빛으로 이어가리라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오리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

일찌기 김형직선생님께서 력사의 새벽길을 걸으시며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야말 큰뜻을 새기신 남산의 맹세와 위대한 수령님께서 14살 어리신 나이에 압록강을 건느시며 조선해방의 비장한 결심을 다지신 포평나루터의 맹세와 더불어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받들어 조선을 빛내이시려는 장군님의 룡남산에서의 맹세는 위대한 실천으로 조선이 세계우에 우뚝 올라선 영광의 현실을 안아오시려는 불멸의 력사적선언이였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운명, 미래를 한몸에 안으시고 우리 인민, 우리 겨레의 무궁번영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 한생을 바치시려는 더없이 크고 신성한 맹세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룡남산에서 다지신 그날의 맹세를 지켜 한생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공화국을 이끄시여 승리와 변혁으로 빛나는 주체조선의 새시대를 안아오시였다.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만이 조선혁명을 힘있게 향도할수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정립체계화하시고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서 발전풍부화하시였다.

또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력사적인 투쟁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의 1211고지인 강철전선에서부터 우리 인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고 공화국의 건설력사에 자랑스러운 페지를 아로새긴 평양번영기가 열리였으며 세상사람들이 《20세기 문예부흥》으로 격찬한 주체문학예술의 전면적개화기가 펼쳐졌다.

뿐만아니라 천만인민이 하나의 뜻, 하나의 발걸음으로 뭉쳐나가는 조선의 새 모습이 태여났고 조선로동당이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룬 어머니당,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 당으로 건설되였다.

주체의 기발아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지키는 투쟁은 그 한걸음한걸음이 가장 포악하고 강대한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전을 동반하는 피어린 려정이였다.

자주로선을 견지하는것을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중핵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건드리거나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단호히 배격하시였으며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 우리 나라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식으로 해결하여오시였다.

특히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시기 강철의 신념과 무비의 담력, 불굴의 정신과 초인간적인 의지로 조국수호의 최전방에서 반미대결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시여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영예롭게 지켜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선군장정의 피어린 길에서는 사탕알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수 없으며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선 사회주의를 지키고봐야 한다는 신념의 메아리가 울리였다. 철령과 오성산, 초도와 대덕산, 지혜산, 351고지, 1211고지를 비롯한 조국방선의 고지들과 초소들에로 이어진 위대한 장군님의 빨찌산식강행군길이야말로 보통의 각오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실행할수 없는 험난한 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이 희생적인 헌신의 애국장정길이 있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공화국인민에게 자존의 넋을 심어주시고 천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수호하시여 강국건설의 튼튼한 밑천을 마련해주신 바로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다 바쳐 이룩하신 불멸의 공적이 있다.

룡남산마루에서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과 의지를 받들어 사회주의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이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 땅우에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사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할 웅대한 뜻을 피력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앞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선언을 하신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는 비상히 높아졌으며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총진군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는 오늘의 경이적인 성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룡남산에서 다지신 맹세를 받들어 조선을 누리에 빛내이실 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불철주야 애국헌신, 애민헌신의 대장정을 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희생적인 헌신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라고…

천재적인 예지와 담대한 배짱, 비범한 령도로 공화국을 세계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룡남산에서 다지신 맹세는 이 땅우에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청년중시정치와 공화국의 밝은 미래

예로부터 10년을 위한 계획은 나무를 심는것이고 민족을 위한 백년대계는 청년들을 옳바로 키우는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을 어떻게 키우고 준비시키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전도가 좌우되게 된다.

이렇게 놓고볼 때 지금 공화국에서 청년들의 정신세계는 어떠한가.

자기들의 귀중한 청춘시절을 조국을 위해 바치며 조국보위초소와 수천척 지하막장 그리고 공장과 농어촌, 발전소 등 사회주의건설장들 그 어디서나 커다란 포부와 리상을 안고 아름다운 삶을 꽃피워가는 청년들의 미덥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다.

번화한 도시에서 농촌으로 자원진출하여 사회주의대지에 청춘의 땀을 바쳐가는 남녀청년들, 조국보위초소에서 영예로운 군사복무를 마치고 조국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곳으로 달려간 제대군인들, 부모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여 아름다운 생의 자욱을 새겨가는 강선땅의 《처녀어머니》와 같은 미덕의 주인공들, 외진 섬마을과 산골마을의 학교, 분교들에 자원진출해간 대학졸업생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고 지어낼수도 없는 공화국청년들의 고상한 풍모와 투쟁기풍은 오직 청년중시를 조선로동당의 3대전략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청년강국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꽃펴날수 있는것이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피눈물속에 맞이한 주체101(2012)년에 청년절경축대회를 성대히 가지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도 전선시찰의 길에서 청년들을 잊지 않으시고 친히 축하문까지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당과 국가사업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청년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해 1월 청년들에 대한 교양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모든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 당의 청년전위로 키우자는것이 바로 자신의 지론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이 강해야 당도 강하고 국가도 강해진다는 철석의 신조를 지니시고 청년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지금도 공화국인민들은 산세험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청년돌격대원들에게 커다란 믿음과 용기를 안겨주시며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들로 키워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주체105(2016)년 4월 발전소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런 험한 곳에서, 상상할수 없는 혹한속에서 거창한 대상건설을 한다는것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당시)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대상이면서도 우리 당력사에 청년들이 새기는 또 하나의 빛나는 자욱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청년들의 발걸음속도가 높아야 조국의 전진속도도 빨라진다고 하시면서 당은 청년들을 굳게 믿으며 청년들이 강성국가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려는것이 당중앙의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진정 청년들에게 이 세상 더없는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며 청춘시절을 값있게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나라가 젊어지고 인민이 젊어지고 사상의 강자, 정신력의 강자들인 청년들이 육성되고있다.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하수인들의 황금만능, 약육강식의 반동통치로 하여 청년들이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우환거리로, 범죄의 온상으로 되고있을 때 공화국의 청년들은 절세위인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 첨단과학기술의 개척자, 미덕과 미풍의 소유자들, 강국건설의 돌격대, 휘황찬란한 미래의 주인공들로 그 이름 빛내이고있다.

이런 청춘대오가 무성한 숲을 이루어 공화국의 전도는 밝고 양양하며 승리는 확정적이다.

심 철

탁월한 사상리론의 거장

국가방역능력건설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공화국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탁월한 사상리론가,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오늘의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속에서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국가방역능력건설사상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그에 대해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게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현 비상방역상황관리와 국가방역능력건설을 위한 과업에 대하여》에서 당면한 방역위기를 성과적으로 타개하는것과 함께 국가방역능력건설을 동시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국가방역능력건설사상의 본질은 그 어떤 돌발적인 방역위기도 주도권을 틀어쥐고 공세적으로 제압하며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게 국가적인 대응능력을 완비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인민의 생명을 엄중히 위협하는 전염병의 발생과 류입, 전파를 선제적으로, 효률적으로 통제관리할수 있는 제도적, 인적, 물질기술적준비를 철저히 갖추는것이다.

여기에는 나라의 방역능력, 위기대응능력을 비상히 높여 세계적인 보건위기속에서도 귀중한 우리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철저히 지켜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 확고부동한 의지가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국가방역능력건설의 기본내용과 목적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밝혀주신 국가방역능력건설의 기본내용은 우선 전체 인민을 조선로동당의 방역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방역의식을 높여 방역사업이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되도록 하는것이다.

세계적인 악성전염병발생사태이후 2년 3개월동안 공화국인민은 국가가 취한 선제적이며 강력한 방역조치와 시책들을 일치단결된 조직력으로 철저히 실행함으로써 안정된 방역환경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중단없이 다그쳐 커다란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우리의 방역은 그 어떤 제도적장치나 물질기술적수단보다 인민들의 자각적일치성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이며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 전민항전, 전민합세로써만 대승을 이룩할수 있다고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염병의 발생과 류입, 전파를 완벽하게 차단, 소멸할수 있게 국가적인 방역제도와 체계를 구축하는것과 함께 방역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와 보장사업을 강화하며 전망적인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는 문제들도 국가방역능력건설의 기본내용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목적하는 국가방역능력은 나라앞에 도래하는 그 어떤 보건위기도 주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억제, 관리, 해소할수 있는 공고화된 사업체계와 질서, 기술력량과 물질적토대, 잠재력의 총체이라고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국가방역능력건설사상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방역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그 어떤 방역위기속에서도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무조건적으로 책임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집약된 가장 정당한 사상이다.

뿐만아니라 임의의 위기상황에도 주동적으로 공세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략을 밝혀주는 가장 독창적인 사상이며 당과 정부, 인민이 일치단결된 강한 조직력, 대중의 높은 정치의식과 고도의 자각성, 덕과 정으로 화목한 사회주의사회의 본태, 자립경제의 위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국가의 방역능력을 가장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려세울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과학적인 사상이다.

참으로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 가장 열렬한 인민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방역대전을 진두지휘하시기에 공화국은 방역전쟁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보다 훌륭한 미래를 앞당겨올것이다.

백명일

사랑담아 지어주신 이름들

세상만물에는 다 이름이 있고 이름에는 자기고유의 뜻이 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역시 자식들에 대한 부모들의 크나큰 기대와 사랑, 바라는 뜻이 담겨져있고 하나하나의 창조물, 건축물마다에는 그 가치와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제일 뜻이 깊고 듣기에도 좋은 이름을 지어붙이고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인민의 천하제일락원으로 변모되는 공화국의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들과 창조물들가운데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이름을 지어주신 건축물들과 제품들도 있다.

본사편집국은 그 이름들에 비낀 절세위인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펼쳐보고저 한다.

뜻이 깊고 아름다운 이름— 경 루 동

수도의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는 지난 4월 황홀한 강안다락식주택구가 일떠서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냈다.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의 이름은 《경루동》이다.

이 이름에는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사랑이 담겨져있다.

지난해 8월 건설중에 있는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택구의 행정구역명칭을 아름다운 구슬다락이라는 뜻으로 《경루동》이라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해당 부문에서 이를 심의해볼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근로하는 평범한 인민들에게 아름다운 구슬로 지은 집을 주고싶으신 마음이 얼마나 곡진하시였으면 이처럼 강안다락식주택구의 행정구역명칭까지 경루동으로 제안하시였으랴.

경루동.

위대한 어버이의 위민헌신의 구슬땀이 모이고모여 그대로 구슬다락들이 된듯싶은 이곳에 보금자리를 편 인민들은 꿈같은 행복을 마음껏 노래하며 세상에 부럼없는 복락을 누리고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들의 집주소를 묻는 사람들에게 자부심에 넘쳐 대답하고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절세위인의 인민사랑에 의하여 일떠선 중구역 경루동이라고.

본사기자 오해연

수필 인사에 담아보는 생각

무릇 사람들은 서로 만나거나 헤여질 때 또는 어떤 련계가 지어질 때 안부를 묻거나 안녕을 바라며 례의를 표시하군 한다.

그것이 바로 인사이다.

생활속에서 너무도 례사롭게 나누는 인사, 일상적인 례의범절의 하나인 그 인사가 절세위인에 의해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무한대한 무게와 심원한 의미, 크나큰 정과 열, 불가항력을 담게 된다는것을 나는 얼마전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을 들으면서 또다시 절감하였다.

력사에 금문자로 길이길이 아로새겨질 잊지 못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다시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고저 한다고, 부디 모두의 귀체안녕과 온 나라 가정의 평안을 간절히 축원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날의 감격이 나의 가슴속에서 채 가라앉기도 전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또다시 최대비상방역전에 참전하여 혁혁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을 만나시고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면서 수도방역전장을 지켜섰던 모든 동무들의 이렇듯 건강하고 활기에 넘친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때문에 방역전에서 승리한 동무들에게 축하의 인사보다 앞서 모두가 그 위기를 디디고 이렇게 건강해준것이 고맙고 또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게 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방역전쟁의 승리를 위해 바치신 자신의 천만로고, 희생적인 헌신은 다 묻어두시고 오히려 위대한 사랑과 크나큰 심혈로 지켜준 이 나라 인민들에게 먼저 인사를 보내실 때 나는 북받쳐오르는 격정을 도저히 누를수가 없어 쌓이고쌓였던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인민이 있지만 우리 공화국에서처럼 수령으로부터, 령도자로부터 건강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며 사는 인민은 그 어디에도 없다.

참으로 생각이 깊어졌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그이의 한없는 사랑과 정, 믿음이 담긴 뜨거운 인사를 송구스럽도록 받아안으며 사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전승의 환희로 끓어번지던 경사스러운 그날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의 초석을 마련해주고 오늘도 우리모두에게 정신적기둥으로 큰 힘이 되여주시는 온 나라 로병동지들과 전시공로자동지들에게 충심으로부터의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하시였다.

어찌 전승절의 그날에만 울려퍼진 그이의 인사의 말씀이랴.

지금도 귀가에 쟁쟁히 울려오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 경축광장에 울려퍼진 경애하는 그이의 마음속고백, 마음속진정 《고맙습니다!》, 또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새로운 발전지침을 책정하는 력사적인 전원회의에서 견인불발의 완강한 노력으로 당대회가 열린 2021년을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사에 특기할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인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을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하시고 뜨거운 인사를 보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어느 한 공장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본때와 일본새에서 류달리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깊이 머리숙여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고 어느해인가 태풍피해를 받은 수재민들을 위해 발목까지 잠기는 감탕길도 주저없이 걸으시고도 돌아가시는 길에 논으로 미끄러져내린 자신의 야전차를 떠밀어준 농장원들에게 정말 수고들 하였다고, 고맙다고 하시며 몸소 인사를 하시였으며 또 언제인가 어느 한 물고기가공장에 들리시여서는 녀성로동자들에게 깊은 인사를 보내고 또 보내신 원수님이 아니시던가.

한생을 변함없이 조국을 위해 헌신해온 로년의 전쟁로병들과 이 나라의 평범한 로동자들, 협동전야에 진한 땀묵묵히 묻어가는 평범한 농장원들뿐만이 아닌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안는 경애하는 그이의 뜨거운 인사이다.

력사를 거슬러보아도 현시대를 둘러보아도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그렇듯 인민을 위하시고 존경하시는분은 찾아볼수 없다.

수령이 인민에게 보내는 인사!

그 인사에서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세계를 본다. 그 인사에서 그이의 진함없는 위민헌신, 멸사복무의 세계를 가슴벅차도록 안아본다.

정녕 그렇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인민에게 보내주시는 뜨거운 인사는 그대로 온 나라 인민들의 힘과 기적의 원천이며 영광과 행복의 절정이다.

위대한 수령이 인민에게 보내는 인사!

나는 이 말을 조용히 외우고외워보며 그렇듯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모시고사는 영광넘친 나라의 공민이 된 긍지와 영예를 가슴뿌듯이 되새기였다.

그리고 그 긍지와 영예를 안고 위대한 우리 수령, 위대한 우리 당,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해, 나의 모든것을 다 바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우리 어머니》의 선률이 나의 심중에 더욱 뜨겁게 안겨들었다.

…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처럼
제일 좋은 어머니 더는 없으리
열백번 이 땅에 다시 태여난다 해도
어머니의 품에서만 살고싶어라
우리 심장 그 뜻으로 고동치리라
아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어머니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조선로동당이여

김순남

수기

절세위인을 모시여 인생의 영광은 빛난다

나의 외할아버지(리인모)가 오늘도 온 겨레의 기억속에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그 이름 빛내이며 영생하는 삶을 누리고있는것은 바로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신데 있다.

나의 외할아버지가 조국의 품에 안긴지 1년이 되던 주체83(1994)년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리인모동지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대학시절에 읽으시였던 어느 한 나라의 포로송환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책이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프랑스포로들의 운명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된것은 결국 령도자를 잘못 만났기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였다, 나는 리인모를 데려올 때 그전에 보았던 이 책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면서 어떻게 하나 그를 꼭 데려와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어렵기는 하였지만 투쟁을 벌려 리인모를 데려왔다, 세계에는 옥중투쟁을 한 혁명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30~40년을 옥중에서 지조를 지켜 투쟁하면서 인생의 전부를 보낸 그런 혁명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투쟁한 동지들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 나는 이것이 우리 당이 전사들에게 베풀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바로 이것이였다. 조국과 겨레를 위해 바친 애국의 삶을 귀중히 여기시고 끝없이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여 나의 외할아버지가 지옥행을 락원행으로 바꿀수 있었고 공화국2중영웅으로, 조국통일상수상자로,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인생의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오를수 있은것이다.

하기에 나의 외할아버지는 조국의 품에 안겨 신념과 의지의 찬가를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리였다.

저를 신념의 화신이라 하셨습니다
제 어찌 신념의 화신이겠습니까
죽어도 못버릴 나의 신념
그것은 **김정일**, 당신이 주신것입니다

저를 의지의 화신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의지의 화신이겠습니까
숨져도 꺾이지 않을 나의 의지
그것은 **김정일**, 당신이 주신것입니다
…

이 찬가는 외할아버지의 심장에서 우러나온 진정의 토로였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외할아버지의 투쟁사실들을 보고받으신 그날 그를 데려오는것을 조국이 줄수 있는 최대의 믿음으로, 마땅한 도덕의리로 간주하시고 세상이 일찌기 알지 못하는 송환작전을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외할아버지를 우리 당의 자랑,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로 내세워주시며 송환과 관련하여서만도 수많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한다.

그러시고도 못다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남조선에 있는 외할아버지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고 그에 대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온 나라에 발표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뿐이 아니다. 나의 어머니가 삼가 올린 고마움의 편지를 받아보시고 40여년세월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르고 자라온 어머니의 심정이 가슴속에 맺히여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시다가 활달한 필치로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를 우리 당은 잊지 않고있다고 회답서한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또 옥중에서 폐인이 된 외할아버지에게 유능한 치료진을 보내기 위한 제안이 남조선당국에 의해 거부당하게 되자 귀중한 약재만이라도 보내주어 소생시키도록 하신 장군님의 사랑속에 그토록 만사람의 심금을 울린 《리인모소생의 신화》가 꽃펴났고 온 세상이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승리》, 《20세기의 기적》이라고 격찬한 력사적인 송환이 이루어질수 있었다.

절세위인들의 손길에 이끌려 나의 외할아버지가 드디여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그처럼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기던 그날에는 《숨쉬는 화석》이나 다름없는 한 전사의 생명을 위해 하늘에는 직승기가 날고 땅에서는 구급소생차가 달리는 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졌다.

조국의 품에 안긴 다음에는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여 고목에도 꽃을 피우게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어제날의 평범한 종군기자였던 전사를 위대한 수령님앞에 내세워주시고 수령님의 존함이 새겨진 당원증과 금시계를 받아안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최상최대의 영광도 누릴수 있게 해주시였다.

리인모가 살 집도 좋은 집으로 주고 료리사도 붙여 구미에 맞는 음식을 대접하자고, 리인모가 완쾌되면 로병대회주석단의 수령님곁에 앉히고 전승기념열병식장에서도 주석단에 오르게 하자고, 백두산에도 가보고 고향에도 들려보게 하자고, 고향의 소학교를 리인모소학교로 명명하자고 세심하게 보살펴주신 장군님.

그이가 아니시라면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영광의 단상에 설수 있었겠는가.

이런 하늘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시고도 해외동포들이 지성껏 마련한 귀한 이불을 선물로 받으시였을 때에는 수십년세월 차디찬 감방에서 추위에 떨던 전사의 어제날이 그리도 마음에 맺히시여 고스란히 외할아버지에게 보내주신 장군님이시였다.

정녕 나의 외할아버지가 헌시에도 썼듯이 끊임없이 아껴주고 내세워주고싶어하시는 은혜로운 손길아래 외할아버지는 누구나 누릴수 없는 행복의 절정에 오를수 있게 되였다.

오늘 나의 외할아버지는 또 한분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영생의 삶을 빛내이고있다.

외할아버지의 생일 100돐을 맞으며 화환도 보내주시고 나의 외할머니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장의를 잘 해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리인모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시대에만 나올수 있는 신념과 의지의 전형이라고 뜨겁게 추억하시면서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진정 조국을 위해 바친 자그마한 공적도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나의 외할아버지만이 아닌 비전향장기수들이 영생의 언덕에 오를수 있은것이다.

우리 온 가족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들께 충직했던 외할아버지세대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충정의 대, 신념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것이다.

오 보 람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겨레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로 (2)

윤이상선생은 그 누구보다 자기의 작곡들에 민족성을 구현한 작곡가였다.

그는 민족악기소리를 그리워하며 민족악기와 가장 음색이 비슷한 서양악기의 연주곡을 쓰군 했다.

피리는 오보에, 가야금은 하프, 해금은 바이올린으로 짝을 지웠고 작곡에서도 민족적색채가 진하게 안겨오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바라, 무악, 례악같은 우리 민족의 음악용어를 자기의 작곡이름에 붙이였다.

1972년 뮨헨올림픽개막행사에서 그는 도이췰란드의 저명한 성악가, 연주가들에게 조선옷(치마저고리와 두루마기)을 입혀 우리 민족의 전통가극인 《심청》을 펼치게 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문화를 과시하였다.

《세계현대음악계에서 조선민족특유의 소리를 살린 작곡가》, 《서양음악그릇에 조선민족의 정서를 담은 작곡가》, 《동서양음악의 교량》 등 프랑스, 도이췰란드 그리고 네데를란드를 비롯하여 세계음악계에서 울려나온 찬사들은 윤이상선생이 서구문명앞에 우리 민족문화를 내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그렇게 세계속에서 민족의 예술적지위를 한껏 높였지만 선생이 고국이라 생각했던 남조선은 가혹하게도 그를 어둠의 나락으로 내뜨렸다.

박정희군사독재《정권》이 통치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동부베를린사건》을 조작하고 윤이상선생부부에게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딱지를 붙이였던것이다.

선생이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작품이 될만한 오페라작품을 만들기 위해 1963년 공화국에 있는 강서고분벽화를 찾은것이 《간첩》으로 몰리게 된 리유였다.

1967년 6월 군사독재《정권》은 갖은 모략으로 윤이상선생부부를 남조선으로 랍치하여갔다.

해외에서 랍치하여올 때부터 소음고문을 들이댄 남조선정보부깡패들은 곧 그에게 본격적인 고문을 들이대였으며 끝내는 그에게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을 내리였다.

하지만 윤이상선생에게서 창작정신만은 앗아갈수 없었다. 선생은 옥중에서 맨 마루바닥에 5선지를 놓고 꿇어앉거나 엎드려 창작을 하였다.

한편 세계는 윤이상구명운동으로 끓어번졌다.

윤이상선생이 랍치된 사실이 알려지자 각국의 문화인들이 《유신》독재자에게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렸고 유명무명의 음악가들이 보수없이 연주회를 열고 선생의 석방을 요구하는 투쟁에로 사람들을 추동하였으며 많은 교회단체들이 기부금을 모았다.

세계도처에서 일어난 항의행동으로 윤이상선생은 2년간의 옥중생활끝에 서부도이췰란드(당시)로 돌아오게 되였다.

이 사건은 세계적인 예술가의 가슴에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동부베를린사건》을 계기로 윤이상선생은 작곡의 키를 돌렸다.

그의 정치적경향은 결코 5선지상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무대에 윤이상선생은 직접 등장하였다.

그는 세계적인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국제적련대속에 더욱 넓은 범위에로 펼쳐나갔으며 1976년 8월에는 일본의 도꾜에서 진행된 《한국문제긴급국제회의》에 참가하여 남조선에서 죄없이 감옥에 들어가 악형을 당하고있는 사람들을 위한 투쟁에 국제사회가 나설것을 호소하는 강연을 하였다.

1979년 10월 26일, 《유신》독재자가 사살되자 윤이상선생은 남조선에서 독재가 끝장났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허황한것이였다. 또 다른 파쑈독재자가 나타난것이다.

미국의 배후조종과 비호밑에 1979년 12월 12일 숙군쿠데타를 통하여 군권을 탈취한 전두환역도는 남조선에서 도수높은 탄압의 선풍을 일으켰다. 해외에서 적은 힘이나마 독재에 항거하여 량심껏 싸워온 윤이상선생에게 닥쳐온것은 말그대로 어둠, 어둠, 어둠뿐이였다.

숨막혀 질식할듯싶은 바닥없는 어둠이 그의 고향이 있는 남녘땅을 휩쓸었다.

이 현실을 뼈아픈 심정에서 바라보며 그는 1963년 방문하였던 공화국의 모습을 회억하였다. 그럴수록 공화국에 대한 동경은 커만갔다.

본사기자

《전쟁부르는 한미련합훈련 반대!》

— 8.15대회 부산준비위원회가 전쟁연습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

남조선에서 범죄적인 북침전쟁불장난인 《한》미합동군사연습(《을지 프리덤 실드》)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얼마전 8.15대회 부산준비위원회가 《한미련합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할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이번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윤석열정권등장후 미국의 신랭전돌격대여할속에서 벌어지는 선제타격, 핵전쟁연습》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윤석열《정권》이 입으로는 《대화》를 떠들고 실제로는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상정한 전쟁연습의 강행으로 전쟁분위기를 조장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로총 부산본부장은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겠다는것은 전쟁을 하겠다는것과 다르지 않다. 조선반도를 전쟁의 화염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과 윤석열정부를 우리 로동자들이 용서할수 없다.》고 하면서 《한미련합전쟁연습을 중단시키는데 로동자들이 앞장서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평화통일쎈터 하나》 대표는 《내외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일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날로 거칠어지고있다.》고 하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미국의 돌격대여할을 자임한 윤석열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부산청년겨레하나》 대표는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죄의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다. 한미일군사동맹은 우리 집을 털어간 도적놈한테 우리 집 현관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꼴》이라고 하면서 《일본과의 군사협력 절대반대》를 웨치였다.

참가자들은 22일부터 《한미련합전쟁훈련반대 백운포미군기지앞 출근시위》를 벌린다는것을 선포하고 이번 련합전쟁훈련기간 미국의 핵항공모함 등의 입항을 결사적으로 막을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언론들은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의 시작과 동시에 백운포에 있는 남조선강점 미해군사령부안에 《한미련합훈련 반대!》를 주장하는 삐라들이 뿌려진데 대해 전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핵전력이 입항하는 경우 부산시민들의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전하였다.

본사기자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합동군사연습 중단하라!》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촉구하는 항의행동들 진행—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도 범죄적인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요구하는 항의행동들이 전개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와 일본의 련대성단체들이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의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여 일본주재 미국, 남조선대사관앞에서 항의행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항의행동은 6.15남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가 련대하여 7월 23일부터 진행되는 《전세계 100곳 평화행동》에 따른것이라고 한다.

참가자들은 조선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에 직결되여있다고 하면서 정세를 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이 미국과 함께 공화국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들을 련이어 벌려놓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일본의 시민단체대표는 일본의 날로 로골화되는 군사대국화와 미일남조선군사동맹구축시도는 조선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일본주재 미국, 남조선대사관을 향해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라!》, 《조미공동성명과 북남공동선언을 성실히 리행하라!》,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등의 구호를 힘있게 웨치였다.

오사까부, 효고현, 미야기현, 홋가이도, 아이찌현을 비롯한 일본의 여러 지역들에서도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반대배격하는 항의행동들이 진행되였으며 여기에는 총련을 비롯한 재일동포들과 일본의 여러 련대성단체들이 참가하였다.

본사기자

섬나라에 재침의 문을 열어주려는 극등매국노들

오는 29일은 일제가 불법무효의 《한일합병조약》을 공포한 때로부터 112년이 되는 날이다.

1909년 당시 내각회의에서 《조선을 병합하여 이를 제국판도의 일부로 하는것은 반도에서 우리의 실력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강도적결정을 채택한 일본은 우리 민족을 말살하고 형식상으로만 남아있던 조선의 국가실체를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한 책동에 달라붙었다. 마침내 일제는 1910년 8월 22일 위협과 공갈로 침략문서인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거세찬 반일투쟁기세에 겁을 먹고 그것을 공포하지 못하고있다가 8월 29일에 가서야 공포하였다.

이처럼 비법적이고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40여년간이나 동서고금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식민지폭압통치에 매달리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떠선 우리 겨레를 100여만명이나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였으며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전쟁터와 공사장들에 내몰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끌어가는 등 전대미문의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질렀다. 뿐만아니라 조선의 말과 글, 지어 이름까지도 빼앗으려고 날뛰였으며 수많은 귀중한 문화재부들과 자원을 파괴, 략탈하는 등 조선민족자체를 영영 없애버리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참으로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조선을 강점하고 조선민족을 영원히 말살해버리려고 갖은 악착한짓을 다한 일제의 죄행은 천년, 만년이 흘러도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는 만고죄악이다.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로 하여 조선사람모두가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지울수 없는 가슴속아픔과 피맺힌 한을 안고 살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적발전은 심히 억제되고 국토량단과 전쟁참화 등 형언할수 없는 비극까지 겪게 되였다.

일본은 패망후에도 죄악으로 얼룩진 과거사를 성근하게 반성하고 배상할 대신 불법무효한 《한일합병조약》에 대해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였다.》고 하면서 력사외곡과 독도강탈, 반공화국제재와 반총련소동,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에 광분하여왔다.

이렇듯 일본것들은 반드시 죄값을 받아내야 할 우리 민족의 천년숙적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떠들며 친일매국행위를 로골적으로 일삼고있다.

얼마전에도 윤석열역도는 《광복절경축사》라는데서 《일본은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느니, 《주권문제의 충돌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있다.》느니 뭐니 하며 일본것들과의 관계개선분위기를 마련해보려고 갖은 추태를 다 부리였다.

또한 《한일정상회담》을 성사시켜보려고 비굴하게 놀아대면서 일본과의 관계개선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되고있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보상문제에서도 박근혜집권시기의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존중립장을 표시하는가 하면 일본전범기업자산매각과 관련한 남조선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심의불충분》이라는 리유를 들어 무기한 연기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정상화와 《한미일3자군사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벌려놓는 등 일본과 반공화국대결공조에 열을 올리고있다.

조선반도를 다시 집어삼키려고 혀를 날름거리는 독사같은 왜구들에게 재침의 문을 열어주면서까지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적공조를 강화하려는것이 특등매국노들인 윤석열역적패당의 추악한 흉심인것이다.

이를 빤드름히 들여다본 섬나라족속들은 더욱 기고만장하여 《형》의 자세로 남조선을 동생처럼 대해야 한다느니, 《독도령유권》을 양보없이 주장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갈수록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있다.

도수를 넘은 역적패당의 외세의존과 사대굴종이 간특하고 흉악한 일본것들의 오만성만을 키워주고있는것이다.

현실은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사대매국과 반공화국대결을 존재방식으로 하는 극악한 대결광신자이고 희세의 역적무리이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파멸에로 기울어지는 운명을 미일상전들에 대한 사대매국행위로 지탱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있지만 그럴수록 대외적고립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뿐이다.

우리 겨레는 친일역적무리들을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아놓고 일제가 조선민족앞에 저지른 치떨리는 만고죄악을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

방 철 용

도발적인 《을지 프리덤 실드》의 위험성을 밝힌다

지난 16일 윤석열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벌려놓은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이 예비단계훈련을 거쳐 22일부터 기본훈련에 본격 진입하였다.

호전세력들은 이번 연습이 남조선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실드》(방패)라는것은 연습의 《방어적》성격을 강조해주고있다고 강변하고있다.

원래 가장 흉악한자들일수록 가장 화려한 비단보자기로 자기 정체를 가리운다고 하였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남조선호전광들이 떠드는것처럼 이전 《정부》에서 축소되였던 야외실기동훈련을 단순복원한 수준의 보통연습, 방위태세강화를 위한 《정상적》훈련이 아니라 북침을 노린 극도로 모험적이고 도발적인 실전연습이다.

우선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공격하기 위한데 모를 박고 강행되는 모험적인 전쟁연습이다.

이번 훈련이 국지전과 전면전 등 다양한 경우에 적용할 각종 작전계획들을 통합하여 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내용들로 보충완성된 북침선제공격각본인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진행되는 실동연습으로 일관된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이번 전쟁연습의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에는 모든 민관군이 총동원되였다. 투입되는 병력의 규모와 련합야외기동훈련을 비롯하여 훈련의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도 극히 모험적이다. 지난 3월 남조선 미국합동참모본부 의장들이 각각 서명한 《전략기획지시》에 따르면 《작전계획 5015》에 공화국의 700여개의 합동타격지점외에 추가적인 핵심시설들과 특정지역들이 더 포함되며 조선반도유사시 미군증원무력의 보다 신속한 투입과 남조선군의 독자적공격전력의 적극적인 활용, 전술핵폭탄사용 등의 《대북선제타격》방안이 더욱 구체화된다고 한다. 이로써 북침공격작전계획은 이미 마무리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호전세력이 이번 훈련에서 공화국군대가 남측지역을 《침공하는 경우》라는 기만적인 허구밑에 공화국에 대한 사실상의 선제공격인 《대북역공격》훈련이라는것을 시행하는것은 연습의 위험성을 잘 말해주고있다.

도발자들은 침략의 구실을 날조해내기마련이다. 세계전쟁사의 두터운 갈피에는 그 례가 수없이 많고많다.

호전세력들은 합동군사연습의 명분으로 《북의 군사적도발이 지속되고 위협수위가 높아지고있다.》는 식의 그 어디에도 통하지 않을 케케묵은 《북도발설》과 《북위협론》을 내들고있다. 공화국을 《도발자》로 매도한다고 하여, 전쟁연습의 간판이나 바꾸어 단다고 하여 선제적인 북침을 노린 이번 전쟁연습의 진모를 은폐할수는 없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범죄성과 위험성은 미군과 남조선군의 특수전부대들이 감히 공화국의 국가지도부를 노린 《참수작전》과 《특수작전》을 핵심항목으로 삼은데서 더욱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이번 연습개시에 앞서 미군특수부대인 《그린 베레》 제1특전단이 남조선지역에서 근접전투 및 실탄사격, 건물수색 및 점령훈련을 하였다. 남조선군특수전부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사막에서 미군특수전병력과 함께 적후방침투 및 핵심기지타격, 공중화력유도훈련을 맹렬히 벌리였다.

이어 합동군사연습이 절정단계에 진입하는 8월말에는 남조선군의 전연군단들에서 선발된 특공대원들이 미본토에서 한달동안 련합특수전훈련을 진행하게 되여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기간 《북지역에 대한 민사작전》과 《북핵 및 미싸일제거》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한미련합사단》의 실동훈련이 감행되는것과 사실상 이번 연습을 총괄하는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 미륙군특수전사령부소속 《레인 저》부대에서 오래동안 복무한 특수작전전문가라는것은 이번 전쟁연습의 모험성을 그대로 실증해준다.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은 윤석열역도의 호전성과 맞물려 더욱 배가되고있다. 력대 남조선집권자들가운데서 후보시절부터 《대북선제타격》을 공약으로 내든것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부터 찾아다닌것도, 집권하자마자 《북인민군과 북정권은 적》이라는 《북주적론》을 떠들며 극도의 대결광기를 부려댄것도 윤석열역도이다.

무지무능과 부정부패, 반인민적악정으로 지지률이 20%대로 곤두박질하면서 극도의 통치위기에 몰린 전쟁광, 깡패불한당이 그 탈출구를 긴장격화와 전쟁불장난에서 찾아보려고 기를 쓰고 매달리는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은 안보위기의 먹구름으로 궁지에 몰린 가련한 몰골을 가리우고 한심한 통치력에 쏠린 민심의 분노한 시선을 딴데로 돌려보려고 군사적모험을 불사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제반 사실들은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이 실전을 노린 북침핵전쟁연습, 전쟁시연회이라는것을 여실히 립증해주고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 동족대결에 환장한 대결광으로서의 정체만을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일뿐이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이 핵보유국앞에서 불장난질을 하는것은 스스로 칠성판에 오르는 자살적인 망동이다.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도전하여 미국을 등에 업고 북침전쟁연습불장난에 광란적으로 매달리는 윤석열역적패당은 철저한 우리 민족의 주적이며 악성비루스와 함께 반드시 그리고 철저히 박멸해버려야 할 민족의 재앙거리이다.

불을 즐기는 도발자들에게 차례질것은 오직 수치스러운 패배와 비참한 파멸뿐이다.

김현철

만필 오판 사판

《욕심많은 개》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푸주간에서 큼직한 고기덩이를 훔쳐물고 달아나던 한 마리의 개가 다리를 건느다가 문득 물속에서 저보다 더 큰 고기덩이를 물고있는 개를 보았습니다.

저놈이… 하고 그 개는 왕— 하고 소리를 지르며 물속으로 뛰여들었습니다.

결국 고기덩이도 잃어버리고 천길폭포에 휘말려 죽었다던지, 겨우 목숨만 건졌다던지.

웃음속의 옛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현실을 오판하여 사지판을 향해 줄달음치는 어리석은자들에게 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남조선에도 그런자가 있구만요.

예, 다름아닌 윤석열역도입니다.

국방부청사에 《우리》를 정하고 공화국을 향해 《주적론》을 짖어대다 못해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연습에 발광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이른바 《을지 프리덤 실드》(《UFS》)합동군사연습이 그런것들중의 하나입니다.

이제는 《우리》에 든지 석달을 넘겨 틀이 잡혔는지 이발을 드러내놓고 으르렁거리며 허세와 객기를 부리니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주인이 옆에 있으면 더 승이 나 짖어대는 개처럼 상전인 미국이 쥐고있는 핵몽둥이를 믿고 기고만장해있는 꼴이 참 가관입니다.

허나 상대를 알고 덤벼도 덤벼야지요.

세계전렬에 오른 공화국의 군사적강세는 미국의 《핵우산》따위는 수리개가 거미줄 무찌르듯 할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 지구의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를 막론하고 마구 행패질을 하며 핵깡패노릇을 해온 미국이였지만 공화국만은 조금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발통으로 내리치자니 《고슴도치》이고 이발로 깨물어보자니 《차돌》이니까요.

이제는 세계핵강국으로 급부상하여 미국을 눈아래로 보며 자위적억제력을 단단히 다지고있습니다.

그 어떤 세력이든 군사적대결은 꿈도 꾸지 말라는것이 공화국의 의지이고 벼리고 다져온 군사적강세의 노호입니다.

막강, 최강으로 이름할수 있는 공화국의 자위적억제력은 민족의 운명과 조선반도의 안정을 수호하고 인류의 평화를 담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강아지처럼 무모한지, 미친개처럼 분별을 모르는지 윤석열역도는 상대가 누구인지도 분간 못하고 설치고있습니다.

군대물도 못먹은자가 처음 맡아보는 화약내에 《매력》을 느꼈는지 《주적》, 《힘에 의한 안보》와 같은 소리를 지르며 전쟁불장난에만 극성입니다.

외세와 야합하여 전쟁연습을 광적으로 벌리는것도 모자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끌어들인다, 첨단무기를 개발한다 야단법석이고 지어 천년숙적의 침략무력까지 끌어들이려고 발광합니다.

알고보니 아이적 골목대장을 하면서 피냄새에 습관되다나니 피와 관계된것이라면 덥석덥석한다나 봅니다.

미쳐도 더럽게 미쳤습니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인것처럼 아무때나 으르렁대고 푼수없이 짖어대는 룡와대의 《개》는 물매를 맞기 십상입니다.

《전쟁연습중단! 한미동맹반대!》, 《윤석열 퇴진하라!》

남조선 각계층이 반전, 반미, 반윤석열투쟁에 노도처럼 일떠서는것이 과연 우연한것일가요?

제 능력도 오판, 상대가 누구인지도 오판, 현실도 오판, 민심도 오판… 옛이야기의 개는 욕심때문에 망해버렸는데 현실의 윤석열역도는 오판때문에 종말의 길로 줄달음치고있습니다.

그래서 역도에게 말해주는것입니다.

《오판이자 사판이다.》라고 말입니다.

머리가 돌지 않는자라 알아듣기나 하겠는지.

신경일

풍자시
《윤놀이》인줄 아느냐

윤놀인줄 아느냐
동족대결 노린 핵전쟁연습놀음이
석두같은 미물이니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누나
열개의 입이라도 할말이 없지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려놓았으니

윤놀인줄 아느냐
동족멸살 노린 악성비루스류포놀음이
석두같은 바보이니
후과도 판별 못하고 분별없이 날뛰누나
열개의 입이라도 할말이 없지
성난 호랑이에게 당해야 하는 그 신세

윤놀인줄 아느냐
동족대결, 동족멸살놀음이
석두같은 추물이니
한치의 앞도 가려볼줄 모르누나
열개의 입이라도 할말이 없지
호랑이의 따옹— 엄벌대응에

석열아 석열아 정신차려라
윤놀이처럼 호랑이를 대하다가
네 죽어 뼈다귀 못추려도 상관않겠다만
국민이 피해를 당하니말이다

(필자는 남조선현지주민임)

아무리 발버둥쳐보아야…

윤석열역도가 갈수록 더욱 깊이 빠져드는 파멸의 늪에서 벗어나보려고 바둥대고있다.

민생파탄과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냄새를 피우는가 하면 자기의 정치적무능과 무지를 가리워보려고 교활하게 놀아대고있는것만 보아도 그러하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아둔아, 속물의 추악한 본색을 더욱 드러내놓는 자살적망동에 불과하다.

물가상승을 막는다고 하면서 놀아댄 꼴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역도는 하늘높은줄 모르고 뛰여오르는 물가를 잡는다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연다, 물가안정대책을 세운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우며 돌아갔지만 기껏 취한 대책이라는게 생활필수품에 대한 수입관세철페와 비축하였던 농축산물의 공급확대와 같은 부차적인 조치뿐이다. 그야말로 큰 산이 울어 쥐 한마리 나왔다는 격이다.

그뿐이 아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대통령》선거때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공공료금인상을 자제하겠다고 하던 약속마저 집어던지고 전기와 가스료금을 비롯한 공공료금을 올렸다.

결국 2월까지만 해도 3%대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월과 7월 각각 6%, 6.3%로 치솟아 1997년 외환위기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윤석열역도가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면서 금리인상을 단행한것으로 하여 주민들의 빚부담만 증대되였다.

병주고 약준다는 속담을 거꾸로 읽어야 할 역적패당의 추태가 아닐수 없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은 《고물가로 지금까지 민생이 이렇게 힘든적은 없었다.》, 《윤석열이 민생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하였는데 취임이후 무엇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였는지 묻고싶다.》,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눈을 씻고봐도 대책은 안보인다.》, 《경제를 살리라고 대통령직에 앉혔는데 말로만 민생을 떠들지 말고 밥상물가부터 잡으라.》, 《윤석열의 경제관련조치들은 아무런 현실성도 타당성도 없는것으로서 그 밑바탕에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몰두한다는 인상을 풍겨 집권위기를 모면해보려는 흉심이 깔려있다.》고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하고있다.

이처럼 《보여주기보다는 일과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받자는것》으로서 윤석열역적패당이 벌려놓았던 민생과 경제위기수습놀음은 역적패당의 무지무능과 위선적정체만을 스스로 드러내놓는 결과밖에 가져온것이 없다.

역적패당이 벌려놓은 정치기만극, 반공화국소동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의 새로운 소통모습》을 보여준다면서 출근때마다 벌리군 하던 윤석열역도의 략식기자회견은 정치간상배, 파렴치한, 저능아인 자기의 정체를 민심과 여론앞에 여실히 보여준것이고 민심의 반《정부》기운을 동족대결에로 돌리고 정치적적수들을 제거하기 위해 벌려놓은 《신북풍》소동도 치졸한 《정치보복》, 정치적위기모면을 위한 유치한 모략이라는것이 각계의 비난이다.

사실들은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이 집권위기를 모면하려고 안깐힘을 쓰고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역적패당에 대한 민심의 혐오감과 분노, 반《정부》, 반윤석열기운만을 더욱 증대시키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삼복철의 개털모자

속담에 《삼복철 개털모자》라는 말이 있다. 제일 더운 삼복철에 겨울용개털모자라는 뜻으로 전혀 쓸모가 없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인간, 사람들의 버림을 받고 배척당하는 인간이 바로 이 속담에 꼭 들어맞는자라 하겠다.

그런자가 바로 남조선에 새로 집권한 윤석열역도이다.

윤석열역도는 말그대로 민심에 역행하는것만 일삼는 삼복철 개털모자나 다름없는 반역아이다.

오늘날 남조선 각계는 파국에 처한 경제와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북남간의 악순환을 해소하며 격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남조선이 고래싸움에 끼운 새우가 되지 말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지난 취임 100일이 보여준것은 무엇인가.

서민들의 세금은 늘이고 부자들의 세금을 낮추어 민생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있으며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부추기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률)와 《3저》(저생산, 저소비, 저투자)라는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하고있다.

통치의 초점이 민생이 아닌 《정치보복》에 맞춰져 듣기에도 끔찍한 《검찰공화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안이한 방역대응으로 또다시 악성전염병의 대류행을 불러와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있다.

그런가 하면 무모하고 어리석은 《주적론》과 《대북압박공조》를 고취하면서 이미 실패작으로 락인된 리명박역도의 《비핵, 개방, 3 000》의 판박이와도 같은 《대북정책》을 내들어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재개와 첨단무기구입 등으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고있다.

미국이라면 사족을 못쓰고 굽신거리며 침략적인 인디아태평양전략실현의 앞잡이노릇을 자처하여 주변나라들의 강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한 조선반도와 주변지역 정세불안정으로 심각한 대외적위기를 자초하고있다.

이런 윤석열역도의 민심역주행이야말로 아무 쓸모짝도 없는 재앙거리가 아니겠는가.

자고로 제 대접은 제가 받는다고 했다. 윤석열역도는 지금 남조선 각계층으로부터 말그대로 삼복철 개털모자취급을 받고있는 가련한 존재이다.

최근 남조선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률이 최저로 떨어진것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이 말하듯이 집권 3개월만에 지지률이 20%대로 곤두박질한 권력자는 윤석열역도가 처음이다.

이것은 윤석열역도의 현 처지가 력대 《대통령》들의 집권말기때보다도 훨씬 못한 지경에 처하였고 일찌감치 민심의 완전한 버림과 배척을 받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면 윤석열역도가 왜 이와 같이 가긍한 삼복철 개털모자신세가 되였는가 하는것이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점은 윤석열역도가 미국식《자유민주주의》를 금과옥조처럼 여기고있는데 있다.

미국식《자유민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강한자가 약한자를 착취할수 있는 《자유》이며 강한자가 약한자를 억압할수 있는 《민주주의》이다. 미국식《자유민주주의》가 참다운 자유와 평등, 진정한 인권과 민주주의보장을 가로막고 세계도처에서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합리화하는데 적극 리용되여왔다는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윤석열역도는 바로 이러한 미국식《자유민주주의》를 신주모시듯하며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있다.

따라서 역도가 추구하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정치》는 불피코 민심에 역행하는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정책, 반인민적악정으로 일관되게 되여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자, 민의에 반기를 드는자의 운명은 언제나 비참한 법이다.

물질생활에서의 기형화, 정신문화생활에서의 빈궁화, 정치생활에서의 반동화를 산생시키는 미국식《자유민주주의》를 숭배하는 윤석열역도에게 있어서 삼복철 개털모자신세는 피할수 없는 숙명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가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적혼란과 경제위기, 민생파탄과 외교안보불안을 초래하고있다.》, 《정책기조를 환골탈태시키지 않으면 제2의 초불혁명을 자초할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난규탄해나서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력사와 민심은 이미 민의를 짓밟고 시대에 역행해온 반인민적, 반민주적인 윤석열《정권》에 사망선고를 내리였으며 역적패당이 이전 보수《정권》의 뒤를 이어 가장 비참한 파멸의 나락에 굴러떨어지는것은 시간문제이다.

리광

《탄핵이 답이다》

요즘 남조선 각계가 윤석열역도에 대한 탄핵을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공정과 상식을 좋아한다면 탄핵이 답이다.》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수 없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

무지무능한 윤석열역도가 《대통령》감투를 쓰고 제법 정치를 한답시고 거들먹댄지 몇달 되지도 않아 세차게 일고있는 탄핵열기이다.

이 반윤석열열기는 대뜸 박근혜역도의 탄핵을 련상시킨다.

박근혜역도는 집권기간 저지른 죄악이 하도 커서 민심의 저주와 규탄속에 탄핵당하여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감옥으로 직행한 추악한 역적, 인간쓰레기이다.

돈과 권력에 환장한 최순실무당과 짝자꿍이를 하며 《국정》롱단이라는 특대형 부정추문사건으로 《국민불행시대》를 펼친 랭혈마녀 박근혜를 거꾸러뜨린 탄핵은 민심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자들은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 교훈을 다시금 남조선정치사에 새겼다.

하건만 이 력사의 교훈은 안중에도 없이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반인민적악정과 부정부패, 강권과 독선을 일삼고있는 윤석열역도이다.

박근혜역도는 집권말기에 《탄핵》당하는 신세가 되였다면 윤석열역도는 취임 100일도 되나마나한 시기에 벌써 안팎으로 규탄배격을 받고 《탄핵》당할 운명에 처해있다.

남조선 각계층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시국성명, 론평,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만 터지면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던 윤석열역도의 하루하루는 불공정과 몰상식, 민주주의와 평화파괴, 민생파탄으로 이어지고있다고 단죄하고있다.

특히 《북주적론》을 내들고 미국과 함께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에 광분하는것으로도 모자라 민족의 천년숙적인 일본반동들에게 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윤석열역도의 매국배족행위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은 《윤석열의 퇴진리유는 끝없이 쌓이고있다. 당장 퇴진하지 않으면 주민들에 의해 탄핵당할것이다.》, 《사익추구와 전쟁위기를 고취하는 윤석열은 대통령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윤석열퇴진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지어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조차 윤석열《정권》에 도리질하며 《검찰공화국》, 《부정부패전과자정부》, 《기대를 걸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정권》, 《무지무능한 아마츄어정권》, 《끼리끼리정권》 등의 딱지들을 붙이고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남조선에서 날로 강화되고있는 윤석열탄핵열기는 역도를 력사의 준엄한 심판장에 끌어내고야말 민심의 분출이다.

신기복

《쓰고 버렸다》

남조선에서 윤석열역도에 대한 청년층의 환멸과 배척기운이 급격히 고조되고있다.

윤석열역도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평가가 70%대라고 하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렇게 된것은 청년들을 유혹하였던 윤석열역도의 《공정과 상식》이라는것이 독재부활을 위한 《검찰공화국》, 《끼리끼리정부》, 《동아리정권》만들기와 《대통령실사적채용》, 측근들의 련이은 부정부패행위 등으로 그 기만성이 여지없이 드러났기때문이다.

지난 《대통령》선거때 청년층을 위한다며 내들었던 수십여건의 《생활밀착형공약》들도 재정문제, 현실적불합리성 등을 구실로 자반뒤집듯 아닌보살하거나 아예 줴버린 윤석열역도이다.

요즘 《국민의힘》내부에서 당대표자리를 놓고 벌어지고있는 아귀다툼은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을 더욱 증대시켰다.

《젊은 피수혈》이니, 《신세대영입》이니 하면서 리준석을 당대표로 내세우고 권력찬탈에 리용해먹다가 《대통령》감투를 쓰게 되자 다 파먹은 김치독으로 여기면서 《윤핵관》이라는 자기의 심복들을 내세워 《당원권리정지》의 중징계처벌을 내리게 하고 갖은 인신모욕을 퍼붓다 못해 당대표직을 박탈한 역적패당이다.

청년들에 대한 관점은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당의 희망》, 《변화의 꽃》이라고 침발린 소리로 추어주며 저저마다 청년층을 끌어당겨 당리당략실현에 써먹다가 저들의 기득권유지에 걸림돌이 되자 내쫓는 놀음을 벌리고있는것이 남조선정치권이다.

자기 밥그릇만 지키고 자기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남조선정계에서 청년이란 철저히 《선거용》이고 《리용물》일따름이다.

《선거때마다 청년은 있어도 선거이후에는 청년이 없다.》, 《청년들을 쓰고 버리는 위생종이로 여긴다.》, 이것이 윤석열역적패당과 썩은 정치판에 대한 남조선청년들의 울분이다.

그 울분이 역적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로 터져오르고있다.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 선거에서 표를 던진것이 후회된다.》, 《박근혜처럼 탄핵해야 한다.》

오승렬

귀찮은 추석

추석은 한해 농사를 지어놓고 무르익은 햇곡식의 본격적인 가을걷이를 준비하면서 하루를 즐기는 민속명절로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1년중 속절(민속명절)에서 가장 큰 명절로 쇠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수확과 풍요의 상징인 추석이 부담과 절망의 날로 되여 《차라리 명절이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저절로 튀여나오고있다고 한다.

특히 추석이 당장 눈앞인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의 반인민적인 경제정책의 후과로 각종 원자재와 소비품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여올라 민생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더라도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97년 외환위기이후 가장 높아졌으며 식량과 축산물, 남새류와 소금가격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엄청나게 뛰여올랐다.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 《현재의 민생위기는 1992년이후 가장 최악이다.》, 《그야말로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다.》는 불안과 우려가 고조되고 주부들속에서 《추석이 다가오는것이 정말 걱정이다.》, 《명절이고 뭐고 다 귀찮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이에 대한 반증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대응을 떠들면서 대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들을 완화하여 원자재와 소비품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기고있다.

한편으로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진행한다, 수입식료품들에 대한 관세를 낮춘다, 알곡수입량을 늘인다 하면서 《민생회복》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놀아대고있다.

그러나 남조선 각계층은 윤석열역적패당이 민생위기해결을 떠들고있지만 《장미빛 정책람발》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무능, 무대책, 무대응의 3무정부》,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맹탕정부》라고 강하게 비난하고있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든, 재해로 인명이 죽어가든 아랑곳없이 녀편네나 끼고 영화구경이나 다니고 술에 만취되여 돌아치는가 하면 폭우가 쏟아지는 비상상황에서도 집에 자빠져 잠이나 자는 윤석열과 같은 인간추물, 얼간이가 《대통령》으로 거들먹거리니 남조선인민들의 삶이 날로 더욱 망가지고있는것이다.

추석명절도 걱정과 근심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된 남조선 각계층은 민생외면, 부정부패, 특권특세를 비롯하여 반인민적악정만 펼치는 윤석열역적패당을 하루빨리 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본사기자 배영일

판이한 두 제도, 두 현실

재해를 당해도 불행을 모른다

때없이 쏟아지는 무더기비와 우박, 눈사태, 가물, 해일 등 끊임없이 무섭게 덮쳐드는 자연재해들.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지역이든 가리지 않고 수시로 들이닥치는 이런 자연의 광란은 인류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주고있다. 하여 지구상의 그 어디서나 자연재해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수 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재해를 겪은 사람들속에서 비관과 슬픔, 불행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다. 언젠가 어느 한 나라의 인권옹호단체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이런 내용의 글을 게재한바 있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재해를 당하면 주민들이 오랜 기간 생활상고충을 겪는것은 다반사이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애로와 난관이 아무리 겹쌓여도 국가가 인민을 보살피는 일을 한시도 소홀히 한적이 없다. 엄혹한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시기 위해 공화국정부가 취하고있는 조치들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이 나라에서 울려나오는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사업은 없다는 말의 뜻을 다시금 음미해보게 한다.》

2012년에 있은 개천의 조양탄광지구와 검덕지구에서의 큰물피해, 2015년의 라선지역에서의 큰물피해, 2016년의 함북도북부지구에서의 큰물피해, 2020년의 큰물과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 이 땅을 휩쓴 자연의 광란은 너무도 큰 피해를 가져왔었다.

허나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조선로동당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어 큰물이 휩쓸고간 황량한 페허우에 본래보다 더 훌륭하고, 더 황홀한 마을들과 거리들이 짧은 기간에 일떠서 인민은 크나큰 행복속에 격정을 터친다.

《자연의 광란은 오랜 세월 다져온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휩쓸어갔지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은 만복의 보금자리를 새로 지도우에 새겨놓았습니다.》

《이전 같으면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던 우리 대청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세상이 다 아는 대청리로 천지개벽되였습니다.》

…

이것은 시련에 부닥쳐도 설음을 모르고 자연의 재앙을 당해도 걱정을 모르고 사는 이 나라 인민들의 진정의 토로이다.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어도 불행을 모르는 공화국의 인민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하지만 공화국이 결코 조건이 좋아서, 모든것이 풍족해서 재해를 딛고 일떠서며 인민을 위한 만복의 보금자리들을 일떠세우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공화국의 사회제도가 인민을 제일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며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이기때문이다.

인민중시, 인민사랑이 국책으로 되고있는 이 땅에서는 북변의 한끝으로부터 바다의 외진 섬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나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펼쳐져 자연의 광풍이 휩쓴 그 어느곳에서나 재앙의 난파도를 밀어내며 행복의 파도가 출렁이고있다.

이것은 인민의 리익과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공화국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화폭이다.

하기에 이 땅에 생을 둔 사람들은 누구나 한목소리로, 심장으로 웨친다.

—사회주의 우리 제도가 제일입니다. 그 품 떠나 우린 못삽니다.

강현철

폭우피해

서민은 우는데 집권층은 희희락락

남조선에서 얼마전 무섭게 들이닥친 폭우피해와 관련하여 집권층에 대한 각계의 비난과 저주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윤석열역도는 폭우가 쏟아져내리는 상황에서도 뻐젓이 집으로 퇴근하였는가 하면 재난발생보고를 받고서도 손전화기로 지시하는 놀음을 벌렸다고 한다. 다음날 피해지역을 돌아치면서도 피해자들이 왜 대피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퇴근하면서 보니 아래쪽아빠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되였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바라봄이 없이 대책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늘어놓았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기록적인 폭우에도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모르쇠하고 그냥 퇴근한것을 자인한셈이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과 제 할바를 모르는 《대통령》에게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맡길수 있겠는가, 주민들의 운명 같은것은 안중에 없는 윤석열《정권》의 민생외면정책이 빚어낸 참사라고 집중공세를 들이댔다. 이에 급해맞은 윤석열역도는 할수없이 《죄송한 마음》이라는 속에 없는 말을 늘어놓으며 사과하는 추태를 부렸다.

《대통령실》과 행정부것들은 이러한 윤석열역도를 비호하면서 역도가 사망자들이 발생한 침수현장을 찾은 사진을 인터네트에 게재하고 《재난대응노력》을 광고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특히 《국무총리》라는자는 《대통령》이 반드시 현장지휘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자택이 《국가위기관리쎈터》수준으로 꾸려진것만큼 피해복구지휘에 큰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각계층속에서는 가족이 참사를 당한 수해현장사진을 《정책선전용뉴스》로 활용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소름이 끼친다, 천재지변보다 무서운것은 윤석열《정부》의 안일함과 위기불감증이다, 윤석열《정부》의 총체적무능에 분노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편 남조선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것들도 폭우피해현장을 싸다니며 망언을 늘어놓아 각계층의 분노를 자아냈다.

《국민의힘》것들은 서울시내의 한 수해현장에 밀려가 피해복구봉사활동이라는것을 연출하는 과정에 희희락락하였는가 하면 사진이 잘 나오게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정신로동만 하다가 육체로동을 하니 마음이 가볍다는 망언을 해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각계층속에서는 봉사활동을 간것인지, 구경을 간것인지 알수 없다, 《국민의힘》에게는 재난상황이 《홍보》수단으로 여겨지는가, 피해자들은 피눈물나는데 웃고 떠들고만 있다, 그들이 와야 길만 막히고 복잡하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만 끼친다고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다.

폭우로 참사를 당한 서민들은 가슴이 터져와 피눈물을 흘리고있는데 이와는 상관이 없다는듯 뻐젓이 집으로 퇴근하고 히히닥거리며 망언만을 늘어놓은 윤석열패당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저주와 규탄은 나날이 커가고있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문명원에 넘치는 희열과 랑만

* ❀ * 평양326전선종합공장을 찾아서 * ❀ *

공화국의 평양326전선종합공장에는 문명원이라 불리우는 종합적인 편의봉사기지, 로동자들을 위한 멋쟁이궁전이 있다.

문명원과 그곳에서 울려나오는 근로자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는 그대로 우리 로동계급이 누리는 문명생활의 일면을 보여주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문명원을 찾아 취재길을 이어갔다.

우리와 만난 주송희 문명원소장은 《공장의 로동자들이 매일 매 시각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는 오늘의 현실은 언제나 로동자들을 제일로 아껴주고 위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은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문명향유의 주인공이 된 이 공장로동자들에 대한 축복을 담아 문명원이라는 뜻깊은 이름으로 부르도록 해주신분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였다.

그와 함께 우리는 문명원의 여러 봉사시설들을 돌아보았다.

1층에 자리잡고있는 맑고 깨끗한 물이 출렁이는 수영장이며 현대적인 설비들과 각이한 용도의 수조들을 갖춘 목욕탕과 물놀이장, 공장의 로동자들을 미남, 미녀로 되게 해준다는 리발실들과 미용실들…

어디를 가보아도 문명을 향유하는 행복감에 젖어있는 로동자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들뿐이였다. 《문명원에서 수영도 하면서 체력단련을 하니 정말 좋습니다.》, 《체력단련실에 들어서면 허리안마기부터 찾게 됩니다. 하루일의 피곤이 씻은듯이 달아나니까요.》

…

한증방에 들어서니 푸르싱싱한 소나무며 단풍나무, 버드나무 그리고 폭포수에 취해 굳어져버린듯한 한쌍의 학과 거부기를 형상한 조각들, 수조에서 꼬리치는 물고기들이며 《소몰이군》과 같은 그림들로 장식된 휴식방에서 장기와 윷놀이를 하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로동자들의 모습도 볼수 있었다.

이곳 관리원의 말에 의하면 옥돌방, 소금황토방은 신경통과 심장병, 당뇨병, 관절염, 부인병 등의 치료에 아주 효과가 좋아 로동자들이 즐겨찾는 곳이라고 한다.

때는 점심참이라 우리는 2층에 있는 종업원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김준걸 작업반장의 이야기도 듣게 되였다.

《우리 공장종업원들은 고기와 닭알, 물고기를 비롯한 영양제식사를 보장받고있습니다. 혁신자들에게는 닭곰, 토끼곰과 같은 특식도 차려줍니다.》

현대적인 주방설비들과 구색을 맞춘 식탁이며 의자들, 깨끗하고 아담하게 꾸려진 식당내부는 문명원의 체모에 잘 어울리였다.

우리는 주송희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웃층에 꾸려진 과학기술보급실로 걸음을 옮겼다. 과학기술보급실에는 전자도서열람실, 사회과학도서열람실, 과학기술도서열람실, 원격강의실 등의 과학기술, 교육거점들이 꾸려져있었다. 이것만 보아도 공장종업원들의 문명에 대한 지향과 열의를 느낄수 있었다.

평범한 로동자들이 누려가는 사회주의문명.

이것이야말로 근로자들이 국가의 혜택속에 보람찬 삶을 향유하고있는 세상, 인민을 제일로 아끼고 내세우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품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 꿈같은 현실인것이다. 우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서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될 공장종업원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문명원을 나섰다.

본사기자 김진혁

독자문답

재중동포 한지수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에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기간 학생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있는가

2012년 9월 공화국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발포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1년동안의 학교전교육과 5년제소학교, 3년제초급중학교와 3년제고급중학교에 이르는 12년동안의 체계적인 교육기간에 새세대들을 혁명적세계관과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인재후비들로 키우는 의무교육이다.

12년제의무교육기간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받고있는 혜택은 실로 크다.

유치원 높은반을 마치고 소학교에 의무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교복과 학용품을 공급받고있다. 학생들은 콤퓨터를 리용한 정보기술학습, 시청각설비를 리용한 외국어학습을 비롯하여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과목학습에 리용되는 각종 설비와 자재, 시약과 도구 등을 무료로 리용하고있다.

도서실에서 학습에 필요한 참고서들을 무료로 열람, 대출하고있으며 학교체육관, 수영장, 음악무용실을 비롯한 각종 소조들에서 마음껏 과외생활을 하고있다.

각지의 소년단야영소들에서 돈 한푼 안내고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고있으며 무료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명승지, 공장, 농장, 기관, 기업소들에 대한 견학, 참관, 답사를 진행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섬, 깊은 산골의 몇명 안되는 어린이들을 위해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학교(분교)도 수천개나 세워져있다.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훌륭한 통학조건을 보장받고있다. 국가적으로 량강도와 자강도를 비롯하여 학교길이 불편한 곳마다에 통학렬차나 통학뻐스, 통학배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배울수 있게 하고있다.

학생들은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청소년체육학교들에서 희망과 재능의 나래를 활짝 꽃피워가고있다. 초등학원, 중등학원 원아들은 국가의 혜택으로 먹고 입고 쓰고 배우는 모든것을 보장받고있으며 맹인, 롱아학교 학생들은 장애자대우를 받으며 공부하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자기의 소질과 희망에 따라 대학추천을 받으며 국가가 대학입학시험을 위한 수험표발급, 기숙조건보장, 귀교 등 조건을 전적으로 담당하고있다. 이들이 공부하는 전기간 교육조건과 환경은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장되고있다.

이렇듯 가장 높은 수준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도의 혜택아래 누구나 로동할 나이가 되기까지의 기간에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펴고 마음껏 배우며 높은 중등일반지식과 기술기능뿐 아니라 고상한 품성, 튼튼한 체력을 갖춘 훌륭한 나라의 역군들로 자라나고있다.

본사기자

《사회주의우월성을 알려면 조선에 가보아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서 존엄높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는 공화국인민의 모습은 외국의 벗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있다.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은 미국의 온갖 제재와 압박속에서도 모든 분야에 걸쳐 놀라운 성과들을 거두고있다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는 조선의 주요시책들이다. 사회가 화목하며 전체 인민이 하나로 뭉친 조선에서는 교육을 중시하고 인간의 건전한 발전에 최대의 힘을 기울이고있다. 하기에 조선은 다른 나라들에서 상상할수 없는 사변들을 련이어 이룩하고있다.》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 부위원장은 조선에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실업자와 거지, 방랑자를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으며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나라의 혜택속에 근로인민은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국가가 인민들에게 모든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 이런 나라가 지구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조선의 사회제도는 온갖 부정부패와 범죄, 썩어빠진 문화가 범람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이 따라 배워야 할 훌륭한 본보기이다.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한다.》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는 불레찐에 다음과 같은 글을 편집하였다.

《사회경제적권리보장에 있어서 조선은 자본주의나라들에 비할바없이 우월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실업자가 없고 로동할 권리 등이 원만히 보장되는 나라는 없을것이다. 사람들은 교육과 치료를 받을 권리,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집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충분히 행사하고있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활동은 인민생활향상에 지향되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는 **김정은**각하의 손길아래 일떠선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있는것이 바로 조선의 현실이다.》

뛰르끼예 둔야 데기스 메덴 관광려행사 사장은 조선인민은 무료교육, 무상치료제와 같은 사회적혜택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향유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평범한 가정의 자식들이 황홀하게 꾸려진 궁전들에서 마음껏 재능을 꽃피우며 자라나고있다. 특히 **김정은**령도자의 사랑속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해마다 건설되여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있다. 조선인민이야말로 세계에서 제일 부러운 인민이다. 그들의 얼굴에 비낀 웃음과 평온감은 결코 지어낼수 없는것이다. 사회주의우월성을 알려면 조선에 가보아야 한다.》

본사기자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중세시기 순안일대의 봉수유적들

우리는 중세시기의 통신제도의 일면을 알수 있게 하는 순안일대의 봉수유적을 돌아보았다. 우리가 처음 들린 곳은 무학산봉수였다.

림금석 평양시민족유산보존사 실장의 말에 의하면 무학산봉수는 고려시기에 사신들을 다른 나라에 파견하면서 사고유무를 알기 위하여 처음 세운것으로 전해오고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외래침략자들이 쳐들어오는것을 중앙정부에 알리였다는것이였다.

《무학산봉수는 서포의 파발고개에서 봉화를 접수하고 평원군 미두산봉수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고가 없이 사신들이 통과하였을 때 홰불을 1회, 사고가 생기면 여러번 홰불을 지피였다고 합니다.》

이때 의주에서 평양까지 신호하는 시간은 불과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계속하여 그는 지금으로부터 400여년전에 개경으로부터 의주로 통과하는 새로운 길이 생긴데로부터 봉수지를 독자산으로 옮기고 이 봉수를 리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현재의 유적들은 후세에 와서 복구한것으로서 발굴당시에는 련락임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이 살던 집터와 기와들이 나지였다고 한다.

이어 독자산봉수에 이른 우리는 화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둥근형태의 화독은 우로 올라가면서 점차 좁힌 모양을 하였는데 이것은 연기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라고 한다.

화독의 규격은 제일 밑단의 둘레가 2m, 높이는 1.5m, 웃부분의 둘레 1m였고 바닥에서 올라와서 0.4×0.4m되는 아궁을 만들어 우로 이마까지 불구멍이 관통되게 하였다.

독자산봉수는 무학산봉수의 임무를 넘겨받아 서포 파발고개로부터 봉수를 접수하여 평원군 미두산봉수지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돌아볼수록 무학산봉수와 독자산봉수야말로 중세 우리 민족의 통신련락수단들을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력사유적이라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장 숙 영

무학산봉수

독자산봉수

2021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들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기술교류사 사장 임완빈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기술교류사의 임완빈사장은 사실 주조라는 기술공학과는 거리가 먼 분야를 전공하였다.

그가 주조분야의 선진기술을 우리 식으로 연구도입하기 위한 개척의 길에 들어선것은 10여년전 어느 한 광산에 나갔다가 알게 된 하나의 사실때문이였다.

파쇄기에 안붙임판으로 들어가는 내마모성부분품을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있었는데 그 량이 간단치 않았던것이였다.

이것을 국산화해보자고 대담하게 접어들었지만 초기에는 실패를 거듭하였다.

하지만 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기술이라는것을 알면서도 누구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전문연구사가 아니고 전공분야가 아니라고 외면할수는 없다고 생각한 그였기에 생소한 탐구의 길에 스스로 들어섰고 그 길에서 단 한번의 주저와 동요를 몰랐다.

사색과 탐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그는 전통적인 주조방법들로써는 내마모성부분품의 높은 질적지표를 원만히 보장할수 없다는것을 파악하게 되였다. 썩 후날에야 그는 자기가 별치않게 보았던 그 주물품이 다름아닌 연소모형주조기술, 일명 거품수지모형연소에 의한 진공주조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만든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였다.

끝이 없는 일욕심, 일단 목표를 내세운 다음에는 기어이 결실을 보고야마는 기질의 소유자이며 완강한 실천가인 그는 누가 하지 않는다고 탓할 사람도 없는 초행길에서 마침내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되였다.

그후에도 그는 전국각지의 공장, 기업소들에 우리 식의 연소모형주조기술을 확대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우리 식의 연소모형주조공정을 연구하고 도입하는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것으로 하여 그는 2021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들중의 한사람으로 되였다.

본사기자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조선민요 《양산도》

《양산도》는 오늘의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를 가리키는 서도지방의 대표적인 민요의 하나이다.

서도지방은 예로부터 민요가 가장 풍부하게 발전하여온 곳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양산도라는것은 양덕, 맹산길을 의미한다.

민요는 대동강을 따라 펼쳐진 양덕, 맹산과 평양의 명승들인 모란봉, 부벽루, 대동문 등의 경치를 련상시키는 시구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조국강산에 대한 자랑을 담고있다.

선률은 유순하고 아름답고 류창하며 밝고 약동적인 정서로 일관되여있는 서도민요의 특징을 잘 살리고있다.

《양산도》의 특색있는 장단은 흥겹고 명랑한 노래들에 널리 적용되면서 양산도장단이라는 독자적인 이름을 가지게 되였다.

민족적정서와 향토애가 풍만한 《양산도》를 비롯한 서도민요는 현대에 와서도 인민들의 시대적미감에 맞게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고있다.

본사기자

건강상식

건강에 해를 주는 식후습관 몇가지

❖ 식후에 담배를 피우는것은 나쁘다.

일부 사람들은 식후에 피우는 담배의 맛이 좋다고 하지만 의학자들은 식후에 피우는 담배 한대의 해독작용은 여느때 10대의 담배를 피울 때와 같다는것을 밝혀냈다.

❖ 식사후 인차 차를 마시는것은 나쁘다.

차를 마시면 소화에 좋다고 생각하며 특히 기름기가 많은 식료품을 먹은 후에 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식후에 차를 마시면 위액의 농도를 묽게 하여 소화에 영향을 준다.

❖ 식후에 인차 목욕을 하는것은 나쁘다.

식후에 인차 목욕 특히 더운물목욕을 하면 피부의 혈관이 확장되여 피부와 팔다리의 피흐름이 빨라지며 소화관에로의 피흐름량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여 소화액의 분비가 제대로 안되고 소화기능이 영향을 받게 된다.

❖ 식후에 인차 운동을 하는것은 나쁘다.

식후에는 소화기계통의 혈관이 충혈되고 피흐름이 증가하며 소화액이 대량적으로 분비되여 영양물질의 소화흡수를 보장한다.

만일 이때 운동을 진행하면 중추신경계통이 부득불 혈액을 운동기관으로 보내야 하므로 소화기관에 대한 혈액공급량이 감소되고 그에 따라 소화액의 분비량도 적어지므로 음식물의 소화흡수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식후에는 위가 팽창된 상태에 있는데 이때에 운동을 진행하면 배아픔, 게우기, 위하수 등을 일으키기 쉽다.

본사기자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고려시기의 천문관계도서 《수시력첩법립성》

1343년에 출판된 《수시력첩법립성》(전 3권)은 당시 우리 나라에서 수시력법에 근거한 력서를 만들 때의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하여 미리 계산해놓은 수표와 그에 관계되는 천문관계자료를 담은 책으로서 고려의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인 강보(13세기 후반기—14세기전반기)가 쓴것이다.

서운관(고려시기 천문기상관측과 력서작성, 시간측정 등을 맡아본 중앙관청)의 정벼슬에 있던 강보는 수시력을 만드는데 필요한 수학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에 $x^4+ax^2+bx+c=0$형태의 1원4차방정식을 얻고 우리 나라 산학에서 예로부터 전해내려오던 개방술을 발전시켜 이 방정식의 정수뿌리를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연구해냈다. 이러한 계산방법을 유럽에서는 훨씬 이후시기인 19세기에 와서야 영국의 한 수학자가 얻어냈다는 사실을 놓고서도 그의 놀라운 수학적재능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강보는 또한 보간법과 관련한 영축분계산에 계차를 리용하면서 1계 및 2계미분리론을 내놓았으며 그밖에 여러가지 간편한 계산법들도 완성하였다.

이처럼 개방술, 보간법, 략산법 등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방법들에 기초하여 강보는 수시력편찬에 필요한 값들을 유효수자 7~8개 또는 그이상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수시력첩법립성》을 집필하였다.

도서 《수시력첩법립성》은 태양의 운동에 관한 리론과 계산법, 달의 운동에 관한 리론과 계산법 및 다섯개 별 즉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에 관한 리론의 3개 체계로 구성되여있으며 부록에는 곱하기와 나누기에 관한 산법리론이 서술되여있다.

《수시력첩법립성》은 저자가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독자적인 계산방법에 기초하여 자립적으로 계산한 천문관계자료를 묶어놓은 도서라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고대 및 중세기 우리 나라 천문학리론과 그 계산방법을 연구함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천문유산으로 된다.

본사기자

천연기념물

양덕노각나무

양덕노각나무는 양덕군소재지에서 10여㎞ 떨어진 북대봉산줄기의 남쪽비탈면에 분포되여있는 노각나무군락이다.

노각나무는 신갈나무숲속에 비교적 고르롭게 퍼져있다.

가장 큰 나무의 높이는 25m, 가슴높이직경은 35㎝이며 평균높이는 12m, 평균가슴높이직경은 25㎝이다.

양덕노각나무는 노각나무의 분포와 특성연구에서 중요한 학술적의의를 가지는 천연기념물이다.

본사기자

사화

마지막발명품 (7)

글 리성덕, 그림 채대성

동래에 이른 영실은 객사에서 려장을 풀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옥섬의 안부를 물었다.

아, 그런데 이 무슨 청천벽력같은 소식이냐!

옥섬이가 이 세상에 없다니 웬 말이냐?!

삼남지방을 휩쓴 그 무서운 병진년(1436) 기근때 부모를 모시고 근근히 살아가던 옥섬이 염병에 걸려 늙은 부모와 함께 한많은 세상을 떠나고말았다는것이다.

옥섬이는 끝내 불행한 한생을 속절없이 마치였구나. 아아, 어찌하여 그 아름다운 처녀가 한생을 불행하게 마쳐야 했느냐?

영실은 객사의 빈방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밤이 깊도록 앉아있었다.

영실은 한평생 누구를 모함한적도 방해한적도 없었다. 오직 성실한 노력으로 살았을뿐이였다.

옥섬이에 대한 사랑도 티한점없이 깨끗한것이였다.

옥섬이 역시 그러했다.

그랬다면 누구때문에, 무엇때문에?

영실은 매일같이 이 무서운 운명의 물음에 대답을 얻으려고 애를 태웠다.

그러느라니 경상도에 나가있은지 일년도 채 못되는 기간에 거의 10년이상이나 늙어버렸다.

한두오리 섞여있던 흰 머리카락은 어느새 서리가 내린듯 온 머리를 덮어버렸고 눈기슭에는 고뇌의 깊은 주름살들이 건너갔다.

맡은 소임을 마치고 경상도에서 돌아온 영실은 경신년(1440)에 호조의 의뢰에 의하여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를 연구제작하는데 착수하였다.

그는 고심어린 탐구의 나날을 거쳐 한해후인 1441년 8월에는 측우기를 발명하였다.

그리고 이어 강의 수위를 재는 량수표도 만들었다.

측우기는 서운관뜰에, 량수표는 마전다리 서쪽과 한강가에 설치되였다.

조정에서는 곧 서울과 각 지방 관청들에 이 측우기를 통일적으로 설치하여 비량을 정확히 측정보고하는 제도를 세웠다.

이리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전국적판도에서 비량을 정확히 측정집계할수 있게 되였다.

장영실이 발명한 측우기는 세계최초의 강우량측정기구였다.

이딸리아에서 베네데또 까스텔리가 만든 기구를 가지고 처음으로 비물의 량을 측정한것은 1639년이였고 또 강우량을 종합적으로 장악하는 체계를 세운것은 훨씬 후의 일이였다.

그런즉 이보다 근 200년이나 앞서 과학적측정기구를 발명하고 전국적으로 강우량을 측정집계하는 체계를 세울수 있게 한 영실은 과연 얼마나 큰일을 하였는가.

영실은 이때 겨우 마흔을 갓 넘긴 나이였다.

그의 과학기술과 창조적예지는 한창 원숙기에 이르고있었다.

앞으로 그 어떤 놀라운 발명품을 더 창안하겠는지를 예측할수 없지만 그의 과학기술활동은 확실히 기대되는바가 컸다.

그런데 이 모든 기대와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무서운 사건이 벌어질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측우기를 발명한 이듬해인 1442년 봄 어느날이였다.

흠경각에 들려 고르롭게 움직이고있는 천문시계 옥루를 살펴본 영실은 천추전 서쪽뜰을 지나 서운관쪽으로 걸어가고있었다. 그 순간 난데없는 라졸 대여섯이 달려들었다.

그자들은 멍청해있는 그에게 다짜고짜로 오라를 지웠다.

영실은 영문도 모르고 의금부로 끌려가면서 언성을 높여 물었다.

《이게 도대체 웬 일이냐?》

명망높은 기술자인 장영실을 모르는바 아닌 의금부 라졸들은 무엇이라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라 매우 면구스러워하며 부지런히 걷기만 하였다.

《아니, 죄없는 사람을 끌어가면 너희들이 무사할줄 아느냐?》

평생 성낼줄 모르던 영실이였지만 너무도 억울하여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령을 집행할뿐이니 그리 알고 너무 탓하지 마시오.》

《령이라니? 누구의 령이냐? 누가 나를 잡아오라더냐?》

《의금부 관사대감의 령이니 그리 아시오.》

영실이 오라를 진채 의금부 당직청에 들어서니 당직을 서던 의금부 도사가 죄인을 호두각으로 끌어가라고 명령했다.

죄인을 심문하는 호두각에는 이미 의금부 당상관들인 지사, 동지사 몇사람이 나와있었고 심문내용을 기록하는 록사들도 대기하고있었다.

그리고 왕궁보수와 토목공사를 맡아보던 관청인 선공감의 직장(종7품벼슬) 임효돈, 록사 최효남, 대호군 조순생이 먼저 잡혀와서 오라를 진채 무릎을 꿇고앉아있었다.

그들은 영실의 동료들로서 서로 련관된 일을 맡아 수행하는 사람들이였다.

영실은 불안한 예감이 온몸을 휩싸는것을 느끼며 운명의 판결을 기다렸다.

드디여 심문이 시작되자 영실은 즉시 사태의 엄중함을 깨달았다.

며칠전 임금이 병치료를 위하여 이천온천으로 가던 도중 람여가 부러져서 수백명 계속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영실의 낯빛은 점점 거멓게 질려갔다.

실로 뜻밖의 우연한 실수로 하여 벌어진 사건이였으나 독사같은 의금부 관리들이 하는 잡도리를 보니 그저 심문이나 하다가 말것같지 않았다.

(아, 억울하구나. 임금을 위해 한생을 바쳐오다가 이런 지경에 빠질줄 어찌 알았으랴.)

영실은 변명할 말도 없었지만 구차하게 빌 생각은 더구나 없었다.

사실 람여채가 부러진것은 감독자나 만든 사람들의 충성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료가 적당치 못하고 그 가공에서 약간한 부족점이 있은탓이였다.

의금부에서는 4월 24일에 《죄인》들에게 줄 형을 정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대호군 장영실은 람여의 제작을 허술히 감독하여 임금의 권위를 높이 받들지 못했으므로 형장 100도를 치고 현임관직에서 파면하며 선공감 직장 임효돈과 록사 최효남은 람여에 쓸 장식쇠붙이를 튼튼하면서도 치밀하게 만들도록 감독하지 못하고 대호군 조순생은 람여가 든든하지 못함을 보고도 장영실에게 마사지지 않으리라고 말하여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하게 하였기때문에 각각 80도를 쳐서 파면한다는것이였다.

의금부의 계언(올리는 글)을 다 보고난 세종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모두 아까운 기술자들이고 특히 장영실은 이 세상 천지를 다 뒤지여도 다시 찾기 어려운 사람이였다.

웃음

갓쟁이의 구실

한 갓쟁이가 임금의 관을 만들어올리라는 령을 받고 온갖 정성을 다해 만들어바쳤는데 그만 임금의 머리에 맞지 않았다.

《다시 만들어오라!》

관리가 관을 도로 내여주며 호통쳤다.

상은 고사하고 지독하게 욕만 얻어먹은 갓쟁이는 맥이 풀려 관을 받아서 머리에 올려놓고 돌아섰다.

그것을 본 관리가 갓쟁이를 급히 불러세우고 큰소리로 꾸짖었다.

《이놈, 임금님이 쓰시는 관을 감히 그 헌 머리에 올려놓다니? 불경스럽다. 당장 내리우지 못할가!》

그러자 갓쟁이가 능청스레 말하였다.

《이건 쓴것이 아니오이다. 이 관은 지극히 중한것이라 손에 쥐고 가도 안되고 등에 지고 가도 안되고 안고 가도 안되오니 오직 머리에 이고 가지 않을수밖에 없는데 모로 이겠소이까 거꾸로 이겠소이까. 부득불 바로 일수밖에 없지 않겠소이까? 그러니 고의로 쓴것은 아니지요.》

그 말에 관리는 말문이 막혀 허거픈 웃음을 지으며 관을 《이고》가도록 내버려두었다.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